생명 살리는 교회
예수 따르는 교회



〈행복한 직분자 학교〉_소명을 따라 헌신으로!

울면 삽니다

오종향 목사와 함께하는 영혼의 아틀리에

우리는 눈물을 부끄러워하는 시대를 삽니다. 눈물은 나약함의 증거, 감정 통제의 실패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눈물 없는 삶은 없습니다. 아파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슬퍼서 울고, 억울해서 웁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남몰래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세상을 살았습니다.

사사기에는 보김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리 높여 울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울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죄 앞에서 울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영적으로 살아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보김에서는 백성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골고다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셨습니다. 우리가 울지 못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눈물이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드린 통곡의 기도는 사흘 만에 부활로 응답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의 눈물이 바뀝니다. 절망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변합니다. 수치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로 승화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는 눈물은 부활의 새 벽을 여는 눈물입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울면 살아납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저장고 삼아 우리의 눈물을 담으셨습니다. 나의 눈물은 예수 안에서 기쁨의 물로 바뀝니다.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생명수로 바뀌어 교회를 통해 세상에 흘러갑니다. 겟세마네에서 울며 기도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 입교, 학습, 임직하는 모든 분들과 증인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매일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순서

찬 송 ····· 다 같 이

학습·입교식 ····· 오종향 목사

신앙간증 ····· 입 교 자 들

직분자임명식 ····· 오종향 목사

성경봉독 ····· 요한복음 20:19-23 ····· 오연총 학생

설 교 ····· 불안한 염려에서 폭발력있는 생명으로 ····· 오종향 목사

찬송기도 ····· 다 같 이

안 내 ····· 다 같 이

축 도 ····· 오종향 목사

점심친교 ····· 모든 이 환영

성경봉독	청소정리
4/5 오연총	4/5 이수민 조
4/12 김하람	4/12 청소년부
4/19 안나현	4/19 김성배 조
4/26 이시원	4/26 우문주 조

교회 소식 및 안내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유치부 주일예배

부활절 감사예배로
함께합니다.

2층 교육부실
11:00-12:10

초등/청소년 양육반

예수마당 / 어성경 구약반

2층 교육부실
초등부: 10:00-10:40
청소년부: 13:00-14:00

금요기도회

끝이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시작되는 기도

3층 예배실
금요일 저녁
19:30-20:30

리딩지저스 가이드

(사사기 8장 ~ 사무엘상 1장)

담임: 오종향 목사

한 명이 생명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소망의 공동체를 만드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갑니다.

- 교육: 최은총 전도사, 교사: 유은희
- 조장: 김성배, 김순영, 김재강, 김현지, 손이숙, 우문주, 유은희, 이수민
- 후원 선교사: 김남진/김성은 (영국 기도 선교), 임일혁/송경남 (캐나다 이주민 선교), 하**/강** (동남아시아 무슬림 선교), 조샘 (라이프스타일 선교훈련)
- 자비 사역 (구제, 구호): 유니시드(북한 이탈 학생 장학), 시선오브(자립준비청년 돌봄), 이천 꽃피는봄날 보호종료아동(생계 지원), 소망을 찾는 이(노숙자, 쪽방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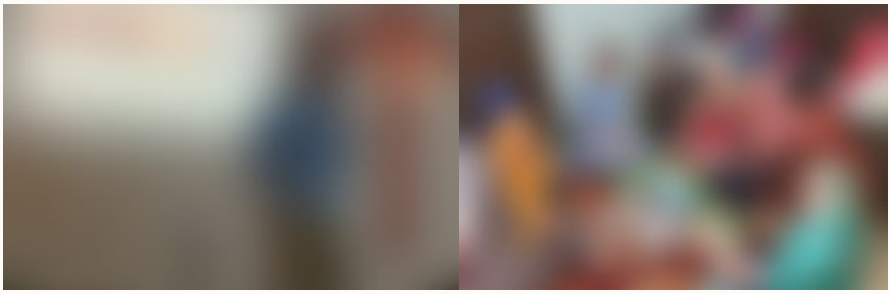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개역개정
19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우리말성경
19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2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23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뉴시티교회 선교 동역 소식 및 기도제목

동남아시아 무슬림사역: 하**/강** 선교사님



선교사님의 안전을 위해 웹판에는 소개와 기도제목을 싣지 않습니다.